첫 장 / 서윤 님의 사연

기획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밤



"이름은 기획 팀장인데,
가 보면 또 운영만
하게 될까 봐요."

생활용품 브랜드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은 지 5년째예요. 고객 문의를 모아 설명서를 고쳤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고 하셨어요. 작은 브랜드의 팀장 제안을 받으셨지요. 그런데 함께 일할 팀원은 아직 미정이에요.

풀이에 사용한 출생 정보

양력 1994년 3월 15일 · 서울 · 태어난 시각 모름
연주 갑술 / 월주 정묘 / 일주 경자 / 시주 미상
시각을 알 수 없어 세 기둥으로 읽었어요.

둘째 장 / 일하는 성향

서윤 님은 어디서 힘이 날까요?

경금 · 일을 가르는 기준

서윤 님이 태어난 날의 천간은 경금이에요. 명리에서 경금은 단단한 쇠에 빗대요. 일에서는 뒤섞인 것을 가르고 기준을 세우는 성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.

자수의 상관 · 발견한 것을 내 말로 풀기

일지인 자수에는 계수가 들어 있어요. 경금에게 계수는 상관이에요. 익숙한 방식에도 “왜 이렇게 하지?” 하고 묻고, 더 나은 방식을 표현하는 힘으로 읽어요. 설명서를 고친 일에 두 성향이 함께 보여요.

“설명서 한 줄 고친 날을 아직 기억하시지요. 그날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짚어 보세요.”

셋째 장 / 두 자리 비교

어디서 내 손으로 고칠까요?

남는다면 | 지금의 운영팀

고객이 어디서 막히는지 이미 아는 자리예요.
최근 문의가 가장 많았던 상품 하나를 골라 설명을
고치고, 한 달 뒤 문의 건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.
다만 응대 건수만 평가받으면 개선은 또 야근 몫이에요.

옮긴다면 | 작은 브랜드의 기획 팀장

상품을 내기 전부터 고객의 말을 반영할 기회예요.
첫 상품의 설명과 구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면
서윤 님이 원한 일에 가까워요. 팀원 채용이 늦어질 때
문의 응대까지 맡는다면 기획 시간은 줄어들겠지요.

"대표님이 맡긴다는 권한, 일 하나를 예로 들어 보세요."

마지막 장 / 답을 듣고 결정하기

수첩에 남길 세 가지 질문

01 지금 팀장에게

"한 달 동안 매주 반나절을 설명서 개선에 써도 될까요?
그 시간의 고객 문의는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?"

02 새 회사 대표에게

"입사 첫 달에 제가 결정할 상품 기획 한 가지와,
팀원이 오기 전까지 제가 맡을 운영 업무는 뭔가요?"

03 나 자신에게

"두 회사의 직함이 똑같아도 나는 어디를 고를까?
그곳에서 금요일 오후에 끝내고 싶은 일은 뭘까?"

백련의 끝말

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일, 그게 있는 자리로 가세요.